

내가 왜 구희승? 씨가 계속 컴퓨터 보고 있다고 말했는지 기억남 나는 자세를 약간 오른쪽으로 틀어서 시선에 구희승씨 쪽으로 보고 있었음+내가 남궁성을 보고 있으면 뒤에 구희승씨가 바로 보인다
구희승씨가 나 봤다고 하도 남궁성 몸에 가려져서 안 보이잖아 그새끼가 날잡는 손

맥북얘기 전

커다란 모니터 샀다 B팀은 월요일에 화면켜서 실습 해라 미경이 너도 실습 잘하는지 지켜볼거다
(실습 안해서 왔다는 얘기는 처음들음 나 3시쯤에 강사가 종이로 그림그린거 봐준거 코드 쓰고 주석 달아놔음.. 수업 끝날때까지 실습 끝까지 안봐준걸로 기억함)

-나 노트북이 없다 맥북

이미 학원 컴퓨터로 잘 실습하고 있었음 학원컴퓨터 잘만 쓰고 있었는데 원소린지

이메일을 왜 그런식으로 썼냐고 하는데

나는 당시 스트레스 너무 받고 충격이었고 빨리 알고 해결하고 싶음+사건 발생 별로 안지남+원래 상세하게 글쓰는 습관

금요일에 열심히해서 따라잡아야지 결심.. 결심이 있는 이유 -> 아빠한테 부탁해서 200만원짜리 삼성 노트북 구입(현대카드)

종이는 기억남(낙서있는 종이) 내가 땅에 떨어진거 주은 기억있음 근데 그 종이 찢은 기억은 없음
4시~4시 30분? 그때쯤인가(불확실)

맥포트 808 자기는 크게/새롭게 손댄거 없고 알고 있는 걸로 만져보니 되더라

나 평소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임 기죽어있고

1월 8일 상담할 때 잠깐 와보라고 할때 두 손가락 끝으로 살짝 내 어깨 잡으면서 말함.. 이때는 조심스러웠음

남궁성이 사과메일 보내면 없던일로 해주겠다 하니
까 부장이 웃으면서 메일 보내실 생각은? 이럼. 합의
보고 싶어 하는듯

원래 자세하게 쓰는 습관+당시 패닉 스트레스 상태
+자세히 쓰면 믿어주겠지+빨리 사과답장받고 끝내
고 싶음

상담실에서 얘기할 때 가슴 2번 쿵쿵 찢렸다는 등 이
라는 말을 존나 큰소리로 말함 수치스러웠음 시발

여기요 하면서 달은 부분 보여주니까 거기가 가슴이
냐? 이럼. 너무 당연히 가슴이니까 무슨 소리지?? 하
고 아무 말 안함

내입으로 남자앞에서 가슴가슴 거리기도 그렇고
녹음이니까 브라컵 달았다 이랬으면 더 정확하겠지